■ 제주 문학계 중진 신작 잇따라

동백 피는 제주·여수, 그 너머

고시홍 소설집 '동백꽃 무덤' 표제작 등 중·단편 7편 수록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곤을동, 무등이왓, 자리왓 동네. 지금 그곳에 가면 안내판으로 잠든 제주4·3이지만 그의 소설 속에선 구체적 사연으로 살아난다. 심방(무당)에 빙의된 마음으로 넋풀이를 하듯 그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에 불러냈다.

'물음표의 사슬' '침묵의 비망록' 등 제주4·3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온 고시홍 작가의 신작 소설집 '동백꽃 무덤'(도서출판 도화). 표제작인 중편과 6편의 단편('할마님의 땅' '무등이왓의 똥돼지' '문전제' '왕돌거리의 늙은 폭낭' '청춘다방' '족보') 등 7편이 묶였다.

단편들은 과거와 현재와 교차하는 4·3 담론을 각기 다른 풍광과 시선으로 바라봤다. 표석 건립을 둘러싸고 "'잃어버린 마을'이 아니라 '빼앗긴 마을'이라 해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문전제'의 주인공처럼 작가는 "사고가 언어의 색깔을 분칠한다"는 말로 잔학한 국가폭력이 공동체 내부에 남긴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할 것을 주문한다.

맨 끝에 배치한 표제작은 작가가 '제주의 노천역사관'이라고 명명한 모슬포와 여순사건의 발원지인 여수를 중심축으로 했다. 동백이 상징꽃으로 피어난 제주와 여수의 비극이 두 지역에 한정되지 않음을 드러내며 "민중의 삶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며 역사는 무엇인가"를 묻는다.

작가는 이번 신작에서 4·3이 가해와 피해의 서사로만 구분될 수 없는 대단히 복잡한 사건임을 짚었다. 표제작의 한 대목에 이어 제주 방언으로 써 내려간 '작가의 넋두리'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여전히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하는 언어의 분칠, 아귀다툼은 가시지 않은 세상이우다. 언제면 이념의 녹조현상, 적조현상이 걷히고 양손잡이가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인고마씀." 진선희기자

행복한 마음을 사려는 사람들

양전형 소설집 '마음판매소' '로스쿨' '태풍의 눈' 등 5편 상처 난 인물들의 기억·감정

시인이자 소설가로 작품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양전형 작가가 신작 소설집 '마음판매소'(도서출판 좋은땅)를 냈다. 표제작 등 5편의 단편을 모은 작품집이다.

양전형 작가의 본격적인 소설 작업은 시보다 늦은 편이었다. 시 쓰기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는 작가는 그 과정에서 삶의 결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들은 이야기로 이어졌고 서울을 오가며 소설 공부에 나섰다. 소설 수업을 들으며 인간의 마음을 응시하는 시선과 서사의 긴장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그는 이번 소설집에 그간의 결과물을 담았다.

수록작 중 '낙엽' '빨간 바람' 두 편은 30여 년 전 썼던 단편들로 이번에 다시 꺼내 다듬었다. '로스쿨' '마음판매소' '태풍의 눈'은 비교적 최근에 집필한 작품들이다. 작가는 "서로 다른 시기에 쓰였지만, 돌아보니 모두 같은 자리에서 출발한 이야기들이었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각각의 소설에는 실패와 좌절을 겪는 인간들이 있다. 작가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들의 상처를 따라가며 기억과 감정을 비춘다.

'다인'이라는 로봇이 등장하는 표제작은 행복한 마음을 사고 싶어하는 이들의 욕망을 보여준다. '다인'은 삶의 중심에서 밀려난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 사람처럼 기계도 수명을 다하면 기능이 정지된다. 작가는 신작에서 태풍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건너는 인물들을 그린다. 결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단단한 내면일지 모른다. 진선희기자

풀밭에 풀 같은 시 가꾸리라

고정국 시조집 '꽃은…' 단시조 119편 한데 묶어 삶의 보법 성찰 등 담아

"바로 이 맛이야, 한평생 우려낸 맛// 저처럼 나도 익어/ 잘 당기는 시(詩)를 낳아// 뜨겁게 빨간 입술로/ 빨려들고/ 싶어라"('홍시' 전문).

고정국 시인이 최근 펴낸 '꽃은 제 형상보다 슬픈 소리를 감추고 있다'(목언예원 출판사)는 이 시조처럼 "한평생 우려낸 맛'을 닮으려 한다.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없애며 마지막까지 남은 시어들로 노래한 단시조를 추려서 묶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작품 제목이나 내용 중에 일부 가필한 시조를 포함해 이번 작품집에는 '계절 다큐멘터리' '느낌표가 셋이다' '꽃은 제 형상보다' '객창일지' '수평선에 피는 꽃' '고요보법으로' '풀밭에 풀처럼 살다가' 등 7개 장으로 나눠 119편이 실렸다. 이들 작품엔 창작의 마음가짐, 삶의 보법에 대한 성찰 등이 느껴진다.

그의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을 찬찬히 관찰한 뒤 읊었을 시조 중에는 "앉은뱅이 들꽃"인 민들레에 몸과 마음을 기울인 작품들이 보인다. 시인은 '민들레 행복론 따라'에서 빗물만 마시고도 원망을 않고, 낮은 데 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민들레의 모습에서 행복을 본다. 연달아 배치된 '민들레로 내리시어' '황제와 민들레'에서도 민들레의 품성이 드러난다. 그것은 때로 바다에 피는 성난 꽃이 되어 잠든 이들을 깨우는('제주 민들레') 존재로 등장한다.

시조집의 끄트머리에 놓인 '풀밭에 풀처럼 살다가'는 시인의 또 다른 다짐으로 읽힌다. 전문을 옮긴다. "이제 풀 가까이 몸가짐을 낮추리라// 초록 물 뚝뚝 지는 그런 시를 가꾸리라// 풀밭에 풀처럼 살다가// 시만 두고// 가리라".

진선희기자sunny@ihalla.com

제주비엔날레 홍보 대사 소리꾼 이희문 위촉 활동

제주도립미술관은 오는 8월 25일 개막하는 '2026 제5회 제주비엔날레'의 메시지를 전달할 홍보 대사로 소리꾼 이희문(사진·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도립미술관은 이번 홍보 대사 위촉에 대해 "경기민요를 동시대적 감각으로 끊임없이 변주해 온 이희문의 예술 여정이 비엔날레 주제 '허끄곡, 모닥치곡, 이야홍 : 변용의 기술(The Art of Metamorphosis)'과 깊이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고 했다.

이희문은 경기민요라는 전통 장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해 온 대표적 아티스트다. 그는 앞으로 비엔날레 메인 홍보 영상 출연과 함께 개막 행사 공연, 공식 SNS 홍보 등 제5회 제주비엔날레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종후 도립미술관장은 "이희문은 이번 비엔날레의 핵심 개념인 '변용'을 잘 대변하는 인물"이라며 "개막을 50일 앞둔 시점에서 홍보 대사와 함께 제주비엔날레의 메시지를 보다 대중적으로 폭넓게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뮤지컬 명곡에 담긴 꿈·도전·사랑

서귀포예당 문화예술교육 토크·라이브 인문 콘서트

귀에 익은 뮤지컬 음악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이 기획한 시민 참여 콘서트 '무대 위, 나의 이야기'다. 오는 19일 오후 3시 소극장.

이날 행사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유명 뮤지컬 대표곡을 다섯 가지 인생 키워드로 풀어내며 뮤지컬을 친숙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인문학 토크와 라이브 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준비했다.

이 무대에서는 편견, 꿈, 소통, 도전, 사랑 등 다섯 개의 키워드에 맞춰 '킹키 부츠' '시카고' '지킬 앤 하이드' '맘마미아' '광화문연가' '미스 사이공' '레미제라블' 등의 주요 넘버를 들을 수 있다. 뮤지컬 배우 장대성, 김송이, 박근식, 류비가 출연해 작품 속 인물과 이야기를 라이브로 전달하며 관객과 소통한다.

관객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다. '나도 뮤지컬 배우'란 주제 아래 주요 넘버 후렴구를 함께 배우는 순서 등이 진행된다.

유료. 예매 개시는 7일 오전 10시 서귀포E티켓.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서귀포시 공공 도서관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4개 공공 도서관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 복지 시설과 연계해 장애 유형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이어 간다. 중앙도서관-파란나라주간활동센터, 동부도서관-해인주간활동센터, 서부도서관-서귀포시각장애인센터, 표선도서관-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 연결돼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독서 활동 참여 기회를 넓힌다.

▷**제주문학곳간 특강 '동심은 파도 파도 깊은 바다!'**=이정록 시인의 집필 경험과 시 창작에 얽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동심이 지닌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 1989년 대전일보와 199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시인은 시와 동시, 동화, 산문 등 다양한 장르에서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 왔다. 오는 19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 문의 070-4115-1038.

▷**2026 제주씨네페미학교 7월 상영회 '세계의 주인' 상영**=영화는 속을 알 수 없는 열여덟 여고생 '주인'이 전교생이 참여한 서명 운동을 홀로 거부한 뒤 의문의 쪽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GV)에 윤가은 감독을 초청한다. 오는 21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제주연동 3관. 무료. 선착순 모집. 문의 070-4047-9130.

선 축 정
CONGRATULATIONS
국가명인명장
(전기명장)

이 봉 만

국가명인명장(전기명장)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 사계향우회
회 장 구 영 모 외 회원 일동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강 영 아
[배우자 : 양동필(서귀포고 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고등학교 14회 동창회 일동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구좌읍·우도면)

강 동 우
(배우자 : 송금숙 : 함덕중 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함덕중학교 제19회 동창회 회원일동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고 석 준
고수광(우도초 19회)의 장남

정 다 운
(우도초 62회)
故 정현일 · 오금숙의 장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도면 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도면 명예면장 김 항 근